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 16:24)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공동체의 사명

31일 송구영신예배, 1월 1일 신년예배, 5~17일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공동체의 사명을 다한다.

그 거룩한 여정의 시작은 예배다. 12월 31일(수) 송구영신예배, 1월 1일(목) 신년예배를 드리고, 1월 5~16일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를 한다.

'송구영신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부천 오후 8시, 오후 11시, 수원 오후 8시 30분, 오후 11시, 대전 오후 9시, 오후 11시, 인천 오후 7시, 오후 9시, 평택 9시, 남양주,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1월 1일(목)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부천, 대전 오전 10시, 남양주 오전 11시 30분, 인천 오전 11시에 드린다. 수원, 평택,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신년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는 1월 5일(월)부터 17일(토)까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R.T.Kendall 목사,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가 설교한다.

이외에도 1월 3~4일, 10~11일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26 선교헌금 작성'을 한다. 1월 23일 상반기 해외 비전컨퍼런스, 26

~28일 목회사관학교가 열린다. 차세대 Passion 집회는 1월 29~31일, 2월 1~3일 막 오른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한다. 4월 18~19일은 장애인주일, 5월 9~10일 가정의 달 행사, 6월 10~12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 7~8월 2026 여름 아웃리치, 9월 5~6일 사르밈 프로젝트, 9월 25~27일 이주민 추석 연합수련회 '하비스트', 10월 3~4일 추수감사주일, 10월 14일 하반기 해외비전 컨퍼런스, 10월 21~22일 러브소나타 이와테, 11월 28일 2026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등이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새해에도 이어지는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채널,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새해에도 '공동체성경읽기'는 계속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와 공동체는 매일 자정 유튜브 채널 '365 성경읽기' (www.youtube.com/@every365bible)에 업로드되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친구와 함께 읽기'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연 1독 하루 15~17분 분량). 2월부터는 온누리교회 공동체성경읽기 앱을 통해서 제공된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공동체별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매일 자정에 업로드되는 영상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공유된 링크가 담긴 메시지에 '공감 표시'를 하거나 짧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성경읽기를 이어가면 좋다. 성경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하단 교인지원센터 →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책갈피형 성경읽기 진도표는 12월 31일부터 1월까지 한 달간 온누리교회 안내데스크 및 헌금함 위에 비치될 예정이다.

공동체성경읽기는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와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39

/ 박지혜 기자

2026 선교헌금 작성

1월 3~4일, 10~11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이찬양 선교사와 잠비아 아이들.

'2026 선교헌금 작성'을 1월 3~4일과 10~11일에 한다.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예배에서 '2026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작성한 선교헌금으로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870여 명을 지원하고, 신규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한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와 기도편지 및 간증집 제작, 기관 지원,

난민과 이주민 지원 등에도 사용된다.

김하수 선교사(2000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봉헌해준 선교헌금은 사막 같은 선교지에서 만난 오아시스"라면서 "늘 기도와 후원으로 생명수를 보급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관련기사 4면>.

/ 홍하영 기자

두란노서원 설립 45주년 감사예배

두란노서원,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150여 명 참석

두란노서원 설립 45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12월 22일(월) 두란노서원 본사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및 두란노서원,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란노서원은 1980년 설립 이후 '문서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 최초 크리스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Duplus)'를 선보이며 문서사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 박지혜 기자

장로합창단원, 권사성가대원 모집

장로합창단과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성가대 신입 대원을 모집한다.

장로합창단은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 전화(010-5264-1191)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1월 3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한다.

권사성가대는 70세 이하 온누리교회 권사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가대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권사는 1월 31일(토)까지 전화(총무: 010-2070-7622, 팀장: 010-4616-1491)로 접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세상에서는 후손들이 조상의 삶과 그 업적을 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상들이 후손인 그분을 미리 전하고, 예언하고, 어떤 삶을 사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시기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의 소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실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과 세상을 내버려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과 공중의 타락한 권세들을 무찌르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뱀에게, 곧 사단에게 주신 심판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고,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 사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 속에 담아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곧 사단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이 되어 버린 모든 인간과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잉태케 하시는 두 가지 의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 7:14).

‘친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자하고, 거부할지라도 강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실의 후손 가운데 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기대할 리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이루어졌듯이, 모든 인간이 구원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인류 바깥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인류는 구원자를 스스로 낳을 수 없고, 교육이나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구원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은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 1:16).

이 족보의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되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요셉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누가복음 1:26~38

“우리는 장례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육신의 어머니를 택하실 때 마리아라는 믿음의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신비로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을 요셉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부터의 오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 소개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에 당황하고 놀랍니다. 이러한 인사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던 여인이었다면, 천사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신분과 역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또다시 놀라워하며 질문합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은 의심과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마리아와 비슷하지만 정반대 의도가 담긴 사례가 <누가복음> 1장의 제사장 사가라의 질문입니다. 사가라는 나이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때가 늦은 나이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때 사가라가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았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가라의 ‘어떻게’는 ‘불신의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입술로는 똑같은 가사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가르침과 설명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

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35절).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사례를 듭니다 (36~37절).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 가정들에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38절).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음성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떤 표적 대신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알려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처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천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어둡고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힘겨운 착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례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쁨’과 ‘은혜’는 뜻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연결된 단어입니다. 은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동거는 관계에 도움이 될까?

어떤 대화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결혼하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결혼한 부부의 75% 이상이 결혼 전에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동거 연인이 사는 가구의 수는 1960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린 시절 일부를 결혼하지 않은 동거 가정에서 보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사랑만 있으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춘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완전히 받아들였다. 종이 한 장, 즉 결혼증명서나 결혼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용을 나누는 것이 재정적으로 현명하다는 말도 자주 듣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흔히 제기된다.
사회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결혼, 가족, 그리고 동거를 연구해 왔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런 통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째, 동거는 덜 건강하고, 덜 행복한 관계를 만든다. 덴버대학교의 스킷 스탠리 교수는 결혼과 관계의 건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동거를 깊이 연구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점점 더 합의에 이르고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지속되는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결혼 전에 함께 사는 것이다.”
결혼 전에 함께 살면 이혼 위험이 50~80%까지 증가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거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기준과 습관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스탠리 교수에 따르면, 결혼한 비동거 부부를 비교했을 때 동거하는 연인이 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스탠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알게 되어 헤어질 수도 있다. 동시에 관계에 들어갈 때부터 언제든지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스스로 훈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021년 발표된 사회학 학술지의 새로운 연구도 스탠리 교수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혼전 동거가 결혼 파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용과 편익을 따질 때 미래에 이혼할 가능성이 중간 정도로 더 높아진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비용이 된다고 경고한다.
둘째, 동거는 빈곤, 외도, 가정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람들은 결혼 전에 함께

사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한 주소에 두 사람의 소득이 들어오니 당연히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진보센터와 버지니아대학교 산하 ‘국가결혼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동거 연인은 결혼한 부부에 비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부분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거 연인은 결혼한 부부처럼 돈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종이 한 장, 즉 혼인증명서가 실제로는 ‘공동의 재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동거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 성적으로 외도할 가능성이 약 두 배나 높다. 이는 동거 연인이 결혼한 부부와 같은 성적 충실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연구는 오랫동안 동거 연인이 결혼한 부부에 비해 서로에게 신체적·언어적으로 훨씬 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보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무려 아홉 배나 더 높다.
셋째, 동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해악을 준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동거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관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현

신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스탠리 박사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아내와 동거했던 남성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와 같은 차이가 여성에게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결혼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계적 헌신과 분명한 책임을 수반하며, 동거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헌신의 길로 훈련시킨다. 결혼 전 동거를 하면 결혼 후에도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도록 배우는 경향이 생긴다.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거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고통과 외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더 높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어떤 대화에서 누군가가 동거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동거는 덜 건강하고, 덜 행복한 관계를 만든다.”
“동거는 빈곤, 외도, 가정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동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해악을 준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정교분리

침묵의 명분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울타리’

양웅 장로
(이수공동체, 변호사)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을 주일예배와 개인 내면에만 가두지 않고, 가정과 직장, 문화와 정치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관점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창 1:1)이시기에 교회와 국가, 법과 제도까지 그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고 본다.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이 단순한 내적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전환으로 이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을 신앙, 예배, 선교를 포함한 종교 자유의 보장과 국교 설정 금지 및 국가와 종교 간 지배와 도구화를 차단하는 제도적 정교분리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 기관 사이의 권력 유착을 막기 위

한 원리이지 종교를 가진 시민이나 지도자가 공적 사안을 양심에 따라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리는 아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둔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 28:19)는 명령은 교회가 문화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르심으로 이해된다. 최근 로잔운동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며 사회 변혁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런 공적 책임 의식을 재확인하는 흐름이다.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는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측면에서 자주 인용된다. 예수는 가이사의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보게 하며 세금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존재와 충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말씀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중의 진리를 선포한다. 정교분리는 이 관점에서 국가와 교회의 고유 사명을 구분하되,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다.

한국 교회 역사도 신앙과 공적 책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3·1운동과 독립운동,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참여해 신앙 양심에 따라 인권과 자유를 주장했다. 이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정권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교분리 논의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이 원리가 “종교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불편해해 왔음을 증언한다. 예언자들이 권력과 다수의 죄를 지적할 때 박해를 받았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요 3:19)는 말씀은 진리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이유로 신앙에 기초한 목소리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진리에 뿌리내리되, 태도는 온유와 겸손으로 다듬어져 공공 담론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며, 민주사회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정교분리는 국교의 설정과 국가·종교 간 유

착을 차단하기 위한 헌법 원리다. 종교를 가진 시민과 종교단체가 양심에 따라 법과 정책, 공공선을 논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형사법과 선거법 등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형사법과 선거법은 사기, 폭력, 부패, 불법 선거운동 등 구체적 위법을 다루며, 정교분리는 그 범집행의 헌법적 기본 구조를 규율한다. 이 둘을 혼동할 경우, 정교분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 활동 전반을 제재하는 기준’처럼 오용될 위험이 있다. 결국, 정교분리는 신앙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돕는 질서다. 이는 복음주의 세계관과 충돌하지 않으며,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공선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정교분리는 칼이 아니라 울타리이며, 그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 속에 실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3-14)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으로 세상에 응답해야 한다. ‘진리 위에 선 겸손한 참여’가 오늘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부르심이다.

2026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1. 그들은 왜 오래도록 선교헌금을 할까? 2. 그들은 왜 평생 선교를 했을까?

그들은 왜 평생 선교를 했을까?

조을희, 김화수, 허귀재 선교사에게 듣다

“사랑.”

선교에 평생을 바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명료했다. ‘2026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만난 조을희(32년), 김화수(16년), 허귀재(14년) 선교사가 그 오랜 세월 숨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연심(戀心)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지극한 사랑이 가장 큰 힘이였다. 조을희, 김화수, 허귀재 선교사가 올해 선교사 은퇴를 한다. 그들은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심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살아냈다. 평생을 바쳐 ‘온 누리의 심장’이 되었다. 열악하고 외로운 선교지에서 오직 사랑으로 버틴 그들의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선교는 ‘가는 선교사’의 사명과 ‘보내는 선교사’의 헌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다.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을 쫓개 사랑을 보내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안심하고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큐사인’

1988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조을희 선교사의 인생이 어느 선교 세미나에서 뒤바뀌었다.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서 크리스천이 0.2~0.3%밖에 안 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겁도 많고 몸도 약했지만, “하나님! 일본 선교할 사람이 정 없다면 저라도 써주세요”라며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 고백이 6년 뒤 그녀를 일본과 중국으로 이끌었다.

선교지에서 보낸 30년 넘는 세월이 그녀의 몸을 많이 상하게 했다. 추위에 몸을 움크리며 지내다가 등이 굽어 잘 펴지지 않았고, 신경성 위장병과 갑상샘암도 찾아왔다. 그 어려움 속에서 조 선교사를 일으켜 세운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놀라운 치유하심,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누리교회는 모든 예산을 줄이면서도 선교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중단하지 않았다. 어느 무명의 성도는 퇴직금을 쪼개어 두 번이나 거액의 헌금을 조을희 선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헌금은 단순히 선교사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조을희 선교사는 10년 전,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일본인 회심 연구’를 했다. 연구하



왼쪽부터 조을희, 김화수, 허귀재 선교사.

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2000선교본부의 연구비 지원 덕분에 일본 4개 도시를 다니며 65명의 일본인 크리스천과 목회자, 선교사를 심층 인터뷰할 수 있었다. 5년여 연구 끝에 일본선교를 위해서는 ‘회심과 세계관 변형에 초점을 맞춘 복음전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한 ‘일본인 전도 클리닉 세미나’를 현재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와 일본 비전교회, 선교사 훈련 등에서 실행하고 있다.

“저에게 선교헌금은 안심하고 선교에 집중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큐사인(Cue Sign)’입니다. 제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담긴 선교헌금은 ‘조 선교사, 겁내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라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만난 ‘오아시스’

잘나가는 비즈니스맨이자 온누리교회 장로였던 김화수 선교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보내는 선교사’로, 화요선교기도회와 ‘중사모(중국을 위한 기도모임)’ 팀장으로 헌신해 누구보다 뜨겁게 선교사들과 동역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선교사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김화수 선교사의 마음에 선교지를 향한 갈망이 피어올랐다. 사업을 핑계로 그 마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50대에 선교지로 보내셨다. 그렇게 그는 ‘보내는 선교사’에서 ‘가는 선교사’가 되었다.

김화수 선교사는 중국 현지 교회에 일대일제 자양육과 QT를 정착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는 게 쉽지 않았다. 5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조용히 숨죽이며 예배와 교육을 했고, 김새가 이상한 날에는 승용차를 바꿔 타며 공항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긴장의 연속이었다.



육체적인 고난도 김화수 선교사를 시험했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째, 아내 김은영 선교사가 독버섯 요리를 잘못 먹고 사지가 마비돼 죽을 고비를 넘겼고, 김화수 선교사는 가슴과 등에 찾아온 대상포진으로 반년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살을 파고드는 추위였다.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 겨울이면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꺼입고 생활해야 했다. 거실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작은 라디에이터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처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이 도착했다. 그 돈으로 구매한 소형 라디에이터가 뿜어내는 온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닌 마음마저 데우는 따뜻한 위로였다.

김화수 선교사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중국 소수민족이 사는 한 산골 마을에 유아원 4개를 세웠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 방치된 아이들, 소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표준어를 몰라서 늘 뒤처지던 아이들이 그 유아원에서 복음과 글을 배웠다. 소망 없던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 덕분이었다.

“저에게 선교헌금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을 느끼는 중에 건네 받은 생명이십니다. 사막 같은 선교지에 늘 생명을 보급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덕분에 은퇴하는 순간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삶 지탱해 준 가장 든든한 ‘기둥’

허귀재 선교사의 선교는 1994년 가을,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를 듣던 중에 시작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남편 故 유성근 선교사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그 날이 14년 선교사역의 시작이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떠나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생업과 가정 일로 그 뜨거웠던 결단을 잊고 지낸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본 선교사로 보내셨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허귀재 선교사와 유성근 선교사는 일본 최북단 아오모리의 시골 마을로 향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곳에서 두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가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인 곳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으로 기도처를 세웠다. 그리고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혔다.

예수를 모르던 일본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변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처하고 싶다”며 허귀재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책을 직접 사서 돈보기를 쓰고 읽으며 평안을 되찾았다.

선교사로서의 보람도 잠시,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다. 우에다온누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교회 개척에 박차를 가하던 2016년, 평생의 동역자였던 유성근 선교사가 폐암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부부는 좌절하는 대신 서로를 보며 웃었다. “여보,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더니 우리에게 그 영광이 너무 빨리 왔네요”라며 두 사람은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 유성근 선교사는 이듬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홀로 남겨진 허귀재 선교사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맸다.

“저에게 선교헌금은 흔들리는 삶을 지탱해 준 든든한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지붕이 무너지듯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선교헌금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870여 명이 ‘온 누리의 심장’이 되어 달리고 있다. 그들과 함께 Acts 29 비전을 써 내려가는 힘, 바로 선교헌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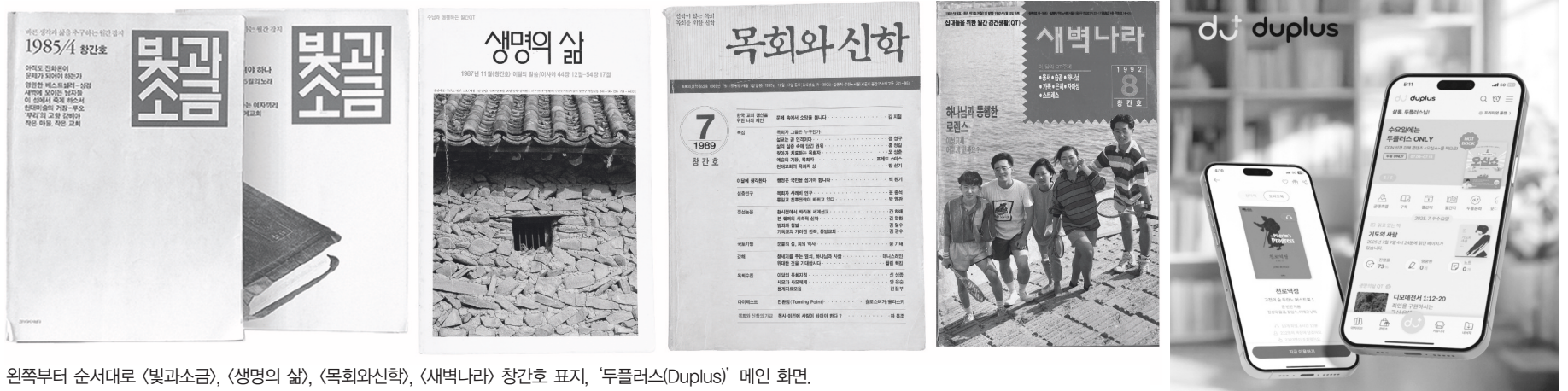
두란노서원 창립 45주년

활자부터 디지털까지, 오직 예수!

‘문서선교’ 새 지평 열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변화

올해는 두란노서원 창립 45주년이다. 지난 12월 22일(월) ‘두란노서원 창립 45주년 감사예배’를 두란노서원 본사에서 드렸다. 1980년 창립된 두란노서원은 45년 동안 ‘문서선교’라는 새 지평을 열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했다. 처음에는 1985년 창간한 월간지 <빛과소금>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활자로 만나는 영의 양식’을 전달했다. 2022년 두란노서원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기독교 출판사 최초 크리스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Duplus)’를 선보이며 ‘디지털로 만나는 영의 양식’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활자부터 디지털까지 오직 예수만 전하는 두란노서원의 역사를 정리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왼쪽부터 순서대로 <빛과소금>, <생명의 삶>, <목회와신학>, <새벽나라> 창간호 표지, ‘두플러스(Duplus)’ 메인 화면.

지에서 선교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넷째, Dream for the ‘Future’(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다. 세대별 QT, 제자훈련, 성경공부 교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가정 예배와 신앙 전수를 돕는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종교 교과서를 발행해 공교육 영역으로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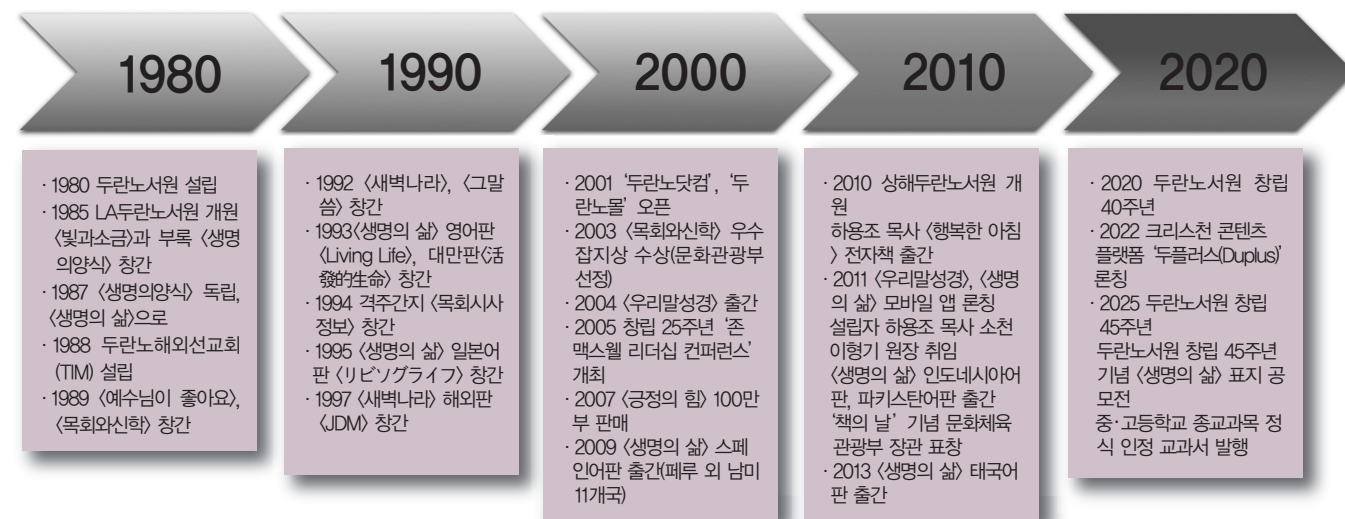
두란노서원의 발걸음 그리고 비전

두란노서원은 지난 45년 동안 연간 100여 종의 단행본과 목회 관련 잡지를 출간했다. 현재까지 단행본 총 4,500여 종을 세상에 내놓았다.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단체’로서의 사명도 굳건히 감당하고 있다.

두란노서원은 지난 시간 쌓아온 출판 사역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중심’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더 깊이 계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확장하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 <생명의 삶> 등 검증된 양육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두플러스(Duplus)’를 통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종이 매체와 디지털 환경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음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두란노서원은 앞으로도 ‘오직 예수’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붙들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완수를 돕는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 역할을 해낼 것이다.

문의: support@duranno.com



‘두란노서원’의 태동

건강 악화로 병상에 머물던 하용조 목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기독교 서적과 잡지, 세미나를 통해서 세속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 그 결실이 바로 ‘두란노서원’이었다.

두란노서원의 역사를 논할 때 1985년 창간한 <빛과소금>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기독교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발간한 잡지였다. 두란노서원은 <빛과소금> 외에도 매일 말씀 묵상을 돕는 큐티지 <생명의 삶>, 목회자를 위한 전문지 <목회와신학> 등 현재까지 총 7종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가스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와 제자양육 교재도 선보이며 교회 교육과 훈련을 돕고 있다.

2022년에는 기독교 출판사 최초 크리스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Duplus)’를 론칭했다. 세계 어디서나 두란노서원의 콘텐츠를 물론이고, 여러 기독교 출판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플러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복음을 접하도록 돕는 ‘내 손안의 복음’, 검증되고 선별된 ‘복음 중심 콘텐츠’, 목회자의 사역과 설교 준비를 지원하는 ‘목회 비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두란노서원의 두플러스를 활용하여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신앙 성장을 하도록 최일선에서 돕고 있다.

네 가지 비전, Dream for the []

두란노서원의 네 가지 비전이 있다. 첫째, Dream for the ‘Church’(교회의 성장과 성숙)다. 교회를 세우는 핵심 양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돕는 게 사명이다. 둘째, Dream for the ‘Culture’(복음으로 세상을 변화)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도서를 발행해서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길을 제시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도록 돕는다. 셋째, Dream for the ‘World’(땅끝까지 복음)다. 두란노서원은 미국, 남미, 대만, 일본 등 해외 지사를 운영하며 17개국과 QT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QT’, ‘전도지 <최고의 행복>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 현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누리교회가 풍성한 성탄절을 보냈다. 12월 20~21일 성탄주일에

배, 20일 온누리율타리 성탄 파티, 21일 양재 크리스마스 콘서트 ‘Noel’, 24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5일 성탄감사찬양예배, 12월 20~

28일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등을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갓툰 첫 장편 애니 ‘다윗’ 공개

1월 1일 기독교 OTT ‘퐁당’, CGN TV, CGN 유튜브 채널

CGN 대표 콘텐츠 ‘갓툰(God-Toon)’이 첫 장편 애니메이션 ‘다윗’을 1월 1일(목) 공개한다. 러닝타임 40분으로, 갓툰 역사상 최초의 장편 시도다. 기독교 OTT ‘퐁당’ (자정)을 시작으로, CGN TV(오후 1시), CGN 유튜브 채널(오후 6시)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장편 애니메이션 ‘다윗’은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전반부를 조명한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정금같이 연단되는 다윗의 성장 서사를 빠른 전개와 몰입감 있는 연출로 그려

냈다.

‘갓툰’ 특유의 재치도 여전하다. 성경 말씀을 기반한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B급 유머’ 코드를 유지해 재미를 더했다. AI와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기존 ‘갓툰’ 시리즈와 차별화된 시각적 즐거움도 선사한다. ‘다윗’ 첫 공식 음원인 ‘King David’도 발매했다. 멜론, 유튜브, 지니, 벅스, 바이브 등에서 들을 수 있다.

‘갓툰’은 ‘God(하나님)’과 ‘Cartoon(만화)’의 합성어다. 성경을 신전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하며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 홍하영 기자

강동온누리교회 온유대학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청파노인복지관 방문



강동온누리교회 온유대학부 청년들이 지난 12월 21일(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청파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그리스의 온기를 나눴다.

‘온유와 식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온유대학부 청년들은 식료품 키트와 전기요 등을 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

노희태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를 소망한다”면서 “이번 사역에 참여한 온유대학부 청년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라오스 나사라 마을 신규 보건소 착공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2월 11일(목) 라오스 나사라(Nasara) 마을 신규 보건소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나사라 마을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존 보건소는 공간이 비좁고, 필수적인 의료 기자재조차 부족해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다. 간단한 진료조차 수도의 대형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컸었다.

새롭게 지어지는 보건소는 기존 시설 보다 3배 이상 확장된 규모다. 마을 입구에 터를 잡아 주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완공되면 나사라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12개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광동 대표(NGO더멋진세상)는 “보건소가 무사히 완공되어 라오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2025 독후감 대회’ 시상식

‘2025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지난 12월 14일(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도서관에서 있었다. 이번 독후감 대회에서는 찰스 디킨스가 집필한 기독교 고전 <예수의 생애>를 읽고 소감을 썼다. 지난달 30일(일)까지 이어진 독후감 대회에는 영아부부터 성인까지 성도 40여 명이 참여했다.

독후감 대회 시상식은 객태일 장로 기도, 노치형 목사 설교, 시상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31명이 감동상과 은혜상을 수상했다.

양재 연합 전도집회 ‘Christmas Concert Noel’

26명 결신, 6명 교회 등록 희망, 35명 긍정 반응

양재온누리교회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물했다. 지난 12월 21일(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양재 연합 전도집회 ‘Christmas Concert Noel’이 열렸다. 양재온누리교회 목회자, 리더십, 성도, 전도대상자 등 총 748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테너 존노, 가

수 송지은이 특선했고, 성탄 뮤지컬 ‘One Day in Bethlehem’을 선보였다. 메시지는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전했다. 전도대상자 111명 중에서 26명이 결신했고, 6명은 교회 등록을 희망했다. 35명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긍정 반응을 보였다.

/ 홍하영 기자

행복한 가정, 내일의 축복 ‘Vision Summit 2030’

이재훈 위임목사, 강미향 목사, 전직국 대표 등 40여 명 참석



사진은 18일 (사)행가래운동본부가 개최한 ‘Vision Summit 2030’.

온누리교회와 함께 저출산 대책 포럼으로 시작한 ‘행가래운동본부’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Vision Summit 2030’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18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환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김선래 이사장(행가래운동본부), 전진국 대표(CG N), 강미향 본부장 목사(행가래운동본부)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Vision Summit 2030’ 행사 1부에서는 조용호 상임이사(행가래운동본부) 사회 및 사역 브리핑, 전진

국 대표 기도, 김선래 이사장 환영사, 이재훈 위임목사 격려사 등이, 2부에서는 조찬과 함께 미래성장위원, 자문위원, 대청·가정사역 리더십, 행가래 리더십들간의 교제와 격려의 시간이 이어졌다.

조용호 상임이사(행가래운동본부)는 “‘행가래운동본부’가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삶의 중요한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도록 더욱 힘쓰겠다”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교회, CGN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온누리교회와 CGN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2026년 1월 6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해야만 1월 9일 국세청 신고를 거쳐, 1월 13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된다.

신청방법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이나 서빙고온누리교

회 재정국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GN 후원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5(온누리교회 재정국), 02-796-2243(CG N)

/ 홍하영 기자



재정국



CGN

12월 세례명단

<서빙고>

강소원 920211
김승욱 900115
우장금 630117
이승은 910209
허해성 930630

-유아

김정원 250306
김동영 이승은
김태이 250116
김승욱 강소원
신지유 240710
신진국 정진아
양서하 210624

오현석 주한별

윤지은 221206
윤성빈 이민희
정은우 240912
정한샘 권혜지
조재영 250506
조현승 이유빈

-유아

김하은 241028
김상협 장미선
유 은 250701
유 준 강신애
전이현 250723
전영대 김문영
정지안 250131

<대학청년>

CHPLUS
표재윤 961217
J4U

-유아
신우영 250808
신승민 박소담

-입교

남병준 041024
남우준 070619
서강현 960802

<양재>

박소연 050415
정태선 600521
조민희 850201

<양재>

박소연 050415
정태선 600521
조민희 850201

<양재>

박소연 050415
정태선 600521
조민희 850201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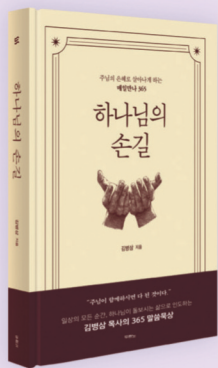
소천 12/19(금) 서초B 최문자 권사 부군상 고 정진성 12/21(일) 강남A 이하수 성도 모친상 고 서병해 12/22(월) 송파A 김도숙 권사 모친상 고 유옥석 12/22(월) 관악금천 김영주 권사 부군상 고 감창배 12/23(화) 성동광진 나도윤 성도 부친상, 이준성 성도 병부상 고 나승관 12/23(화) 서초B 이원희 집사 부친상 고 이상관 12/24(수) 도곡 최은경 권사 부친상 고 최경도 12/24(수) 이촌 구자형 성도 부친상 고 구윤희 12/25(목) 도곡 한상미 권사 모친상 고 이영순 12/25(목) 브릿지33+ 주미순 성도 부친상 고 주웅락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지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지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작업: 이미지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곡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작업: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현금온라인 안내 실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광고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6년 1월 28일(수) ~2월 5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메디엑세스 약사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연중 월 회(선택 가능) 내용: 메디엑세스 의료사역 참가,약품 준비 및 관리(자세한 내용은 문의) 신청 및 문의: 메디엑세스 사무국(02-570-7110), 카카오톡 ‘메디엑세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두란노

THANKS 2025

올 한 해, 여러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란노서원의 모든 사역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언제나주님을 의지하며, 새해 새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도서



하나님의 손길

김병삼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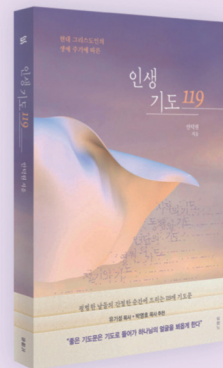
카일 아이들먼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조혜련

결혼을 위한
묵상 기도

조정민

인생 기도
119

안덕원

큐티지 · 매거진



생명의삶 · 생명의삶 플러스

청·장년

목회자



sena

청소년

초등(고)



예수님이좋아요

초등(저)



예수님이랑나랑

유아·유치



목회와신학 · 빛과소금

일년에 딱 한번!

두플러스 연말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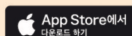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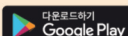
최대 35%

가정과 교회, 선교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복음 플랫폼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이벤트 기간 2025. 11. 20 ~ 12. 30

구독 종류 비정기 1년 이용권

구분	프리미엄 플랜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	정가 ₩ 300,000원	정가 ₩ 204,000원
개인 구독	210,000원 ☎ 2개월 더!	(없음)
5인 이상 단체 구독 (1인 기준)	195,000원 ☎ 2개월 더!	150,000원 ☎ 2개월 더!

- 위 이벤트는 프리미엄/스마트 플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 구독은 5인 이상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인 이상의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센터로 문의).

신청 방법
(택일)

- ① QR 스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결제
- ② 두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결제

고객센터

문의 ☎ 02.2078.3234 TALK 카카오톡(@두플러스)



신청서 작성